

龍山の地形形相에 관한 研究

姜榮祚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Figure of landform of Yong-San

Kang, Young-J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A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it was carried out to characterize the figures of landform of Yong-San, called dragon mountain implied identity and emblem of local landscape by analyzing place name extracted from four county in Kyongsang-Nam-Do.

The figures of landform of Yong-San was characterized and divided into three types, called as Waryong(와룡, lying dragon), Banryong(반룡, dragon lying in a coil), Yongdu(용두, dragon's crown).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ree types of landform were analyzed.

Furthermore, it was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outlines of characteristic landform recognized as a Yong-San and figured out the structure of landform which was easily recogniz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outlines and the spatial structure of landform recognized as a Yong-San including a symbolic meaning can be used as a standard of judgement if an area should be reserved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regional plan.

머릿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각종 개발 행위가 활발해짐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국토 이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지역 景觀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수림과 地形의 상실과 개변은 그곳이 지역의 상징적인 景觀을 구성하고 있었던 연유로 해서 종종 개발 행위와 마찰을 빚곤 한다.

개발 행위는 규모가 커지면 작든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식생의 감소, 동식물의 감소, 地形과 지질의 개변, 수질과 대기의 변화 등을 일으킨다. 특히 地形의 개변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地形 개변의 결과 초래되는 자연 환경에의 영향은 먼저 식물의 감소에 따른 미기상의 변화, 식물 생육 기반인 토양의 소실, 식물을 서식지 또는 먹이로 하는 동물의 생육환경의 상실, 경관의 훼손, 토양 유출, 분진, 붕괴 등 재해 발생을 들 수 있다. 더구나 학술적, 교육적 귀중한 地形이나 레크레이션 요소, 경관적으로 중요한 地形 그리고 지역의 상징적인 경관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地形의 개변은 학술, 교육, 레크레이션, 어머니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環境情報科學センター, 1990:1-14)

지역 개발을 수행할 때 地形分析의 수단으로 경사도, 표고, 成因에 의한 地形分類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상징적인 경관에 대한 배려는 대개 기이한 地形景觀에 쏠려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 지역의 골격적인 경관을 유지하고 마을의 경관적인 독자성을 담보하면서 선조와의 기억을 공유하는 地形景觀이 있다.

예를 들어 고성군 동해면 장항 마을과 같이 마을 사람들의 돌연한 사고사를 노루목이라는 地形部位의 도로 건설과 연결지우는 것이라든가 김해군 상동면 龍山마을과 같이 旱魃의 원인을 龍山을 훼손하여 봉분한 것에 그 원인을 돌리는 행위 (강 영조, 1993)에는 기이하지도 학술적으로도 가치를 가지지 않는 평범한 야산이 때로는 지역 주민의 공간 안심을 담보하는 성스러운 공간이라

는 점을 응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흙덩이에 불과한 地形에서 사물의 形相을 연상하고 나아가서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 가운데 특히 龍山이라고 총칭되는 산의 形相을 밝히려고 한다.

그 동안 발표된 地形의 形相에 관한 연구는 목 (강 영조, 1993), 해안의 微地形 (강 영조, 1995)에 관한 것이 있었다.

본 연구는 龍의 形相을 띠고 있다고 하여 龍山, 臥龍山, 九龍山, 龍頭山, 盤龍山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산을 龍山으로 총칭하고 그 산의 형태적특징을 정리한 것으로 지역 경관의 독자성과 골격을 이루는 地形의 要所와 공간맥락을 밝힌 것이다.

(2) 방법

(가) 龍山의 수집

龍山을 수집하기 위하여 지명이라는 집단 표상을 이용하였다. 집단표상은 집단이 평가하고 체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지명은 집단표상을 언어로 나타낸 것이다. 지명은 장소를 분절하고 집단 내에서 장소를 재채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된다. 그 장소에서 인상적이고 공유 가능한 집단 체험이 지명이 된다. 그 때문에 “지명은 명명 당초에는 그 토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언어이다.” (楠原佑介, 1981:3)

그래서 지명은 地形과 식생 등 地形景觀의 특색과 다른 마을과의 위치 관계가 명명의 근거가 되기 쉽다. (姜榮祚, 1994) 따라서 흙덩어리에 불과한 地形에서 龍의 形相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지명으로 명명되어 외재화하면 그이후에는 그 지명을 공유하는 집단은 지명에 의하여 흙덩어리에 불과한 地形을 龍山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명을 통하여 龍山을 수집하였다.

(나) 龍山의 지명 수집

龍山으로 명명된 지명을 수집하기 위하여 한글학회에서 수집하고 편찬한 「한국지명총람」(한글

학회, 1970)을 이용하였다. 「한국지명총람」은 1965-70년에 걸쳐 전국의 지명을 수집한 것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명 자료이다. 그러나 약 25-30년이 지난 1993-6년에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는 그동안 많은 지명이 잊혀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대상 지역은 김해군, 밀양군, 창원군, 창령군 등 4개 군으로 하였다.

龍山의 地形 形相을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龍'자가 들어 있는 마을과 산의 지명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것은 마을 지명이 51개, 산 지명이 24개로 총 75개였다. 그러나 동일한 地形空間을 명명근거로 하고 있는 지명이 복수로 있어서 이들을 정리하면 장소와 대응하는 지명은 63개였다.

(다) 龍山의 地形 形相 확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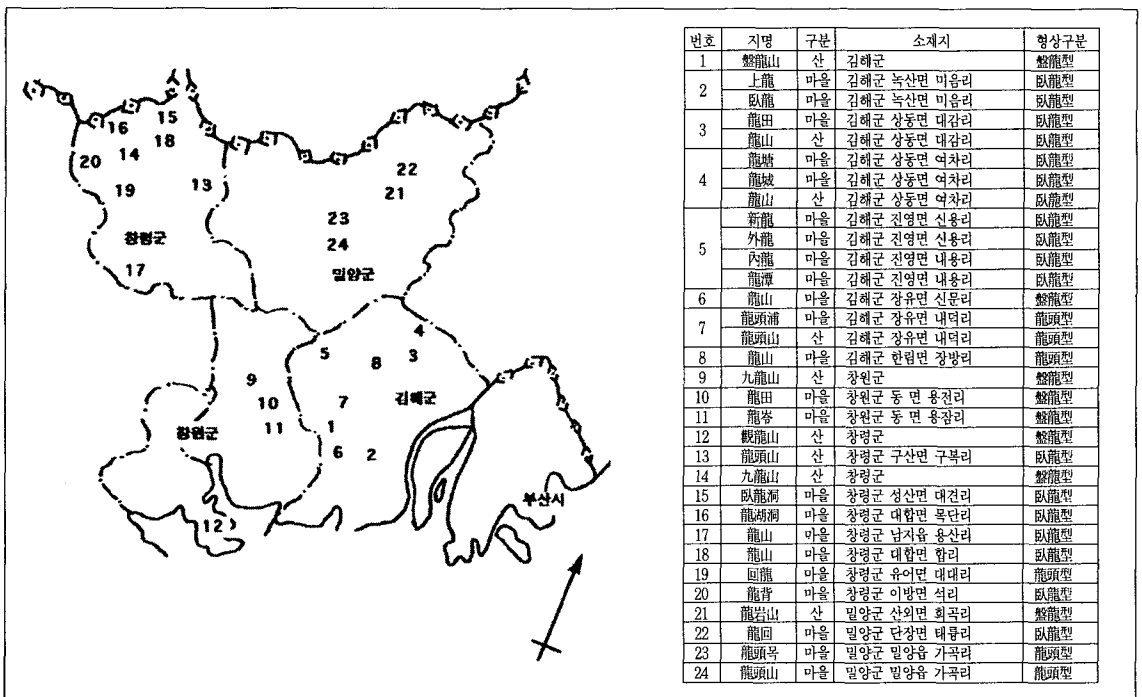
현지 조사는 1993-1996년 까지 실시 하였다. 조사의 방법은 먼저 地形圖를 통하여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 현지 답사하였다. 현지에서는

지역 주민의 탐문조사를 통하여 龍山의 소재를 확인하고 명명 근거가 된 地形 부위를 지적하게 하는 방법으로 龍山으로 불리우는 산의 形相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地形이 龍의 모습과 유사하므로 명명된 지명은 63개의 지명 가운데 24개였다. 여기에는 龍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龍田, 龍의 形相을 띤 산이 물가로 늘어서 있는 地形에 의하여 명명된 龍塘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龍井, 龍淵과 같이 龍의 서식지만을 나타내는 것 등 地形과 무관하게 명명되었거나 아예 龍과는 무관하게 명명된 것이 13개, 현지에서 마을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지명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명명된 장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23개, 소재지를 알 수 없어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곳이 3개소였다.

이상과 같은 현장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24개의 龍山을 대상으로 地形 形相을 고찰하였다. 고찰 대상이 된 龍山의 지리적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대상 龍山의 지리적 분포와 地形形相의 유형

(3)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먼저 龍이라는 상상의 동물의 形相을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고 풍수 용어인 용과 본 연구의 龍山과의 의미적 차이를 밝혔다.

그리고 현지 조사 결과 形相으로 본 龍山의 분류와 그 특징을 기술하고 龍의 形相을 띠게 되는 地形 운곽선의 발생과 그 운곽선이 발생하기 쉬운 地形構造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 행위 등 지역 계획에 있어서 龍山 地形의 보전상의 주의 점을 제시하였다.

1. 문헌에서 보는 龍의 모습

(1) 龍의 形相과 종류

龍은 麒麟, 鳳凰, 거북과 함께 四靈이라고 불리는 상상의 동물이다.

龍은 중국뿐만 아니라 고대 바빌로니아, 인도 등 문명의 발상지라면 어디에서나 상상되어진 동물이다. 이집트, 시리아, 서양에서 등장하는 龍은 거의 바다속의 암흑 세계에 살고 있으며 죽음이나 죄악과 관계가 깊은 악룡이다. 龍은 가뭄과 서리의 피해를 주는 존재로 생각되어 지는 반면, 龍이 가지고 있는 보배는 풍요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朴石基, 1991:490)

「本草綱目」에서는 龍의 形相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龍의 形相은 아홉가지의 동물과 닮은 데가 있다. 머리는 뱀과 같고, 빨은 사슴과 같으며, 눈은 토끼와 닮았다. 귀는 소와 닮았고, 목은 뱀과 닮았다. 배는 조개(蟹)와 닮았다. 비늘은 잉어와 닮았고, 발톱은 매와 닮았으며, 발바닥은 호랑이와 닮았다. 등에는 81개의 비늘이 있다.”(南方熊楠, 1971:99)

龍의 形相을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물 역시 龍의 머리 부분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龍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뱀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함이라고 여겨진다.

龍은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蛇龍과 魚龍이 龍으로 변한다고 하는 화룡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蛇龍과 魚龍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무기로 해석된다.

龍의 形相에 뱀과 잉어가 지배적인데에서 이러한 화룡설이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뱀이 龍이 된다는 설에는 도마뱀이 龍이 된다는 것과 독사뱀이 龍이 된다는 설이 있다. 독사뱀인 蝮龍이 자라 500년이 지나면 蛟龍이 된다. 「大字典」에 蛟龍은 龍의 새끼이며 모양이 뱀같이 생겼으며 길이가 10자나 되며, 네개의 넓고 짧은 발이 있다고 한다. 蛟龍은 한눈에 이무기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다람쥐와 같은 얼굴과 잉어 꼬리와 네 발을 갖춘 뱀과 같은 모양이다.

龍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如意珠라는 구슬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원래 尺木이라는 공작 꼬리와 같은 보물인데, 龍머리에 있으며 博山과 같이 생겼다고 한다. 이것이 있어야 승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불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것이 여의주로 변한 것으로 본다. (趙子庸, 1991:317-318)

우리나라에서는 龍이 상서로운 동물로 상징되어 있다. 龍을 일컫는 말인 ‘미르’는 물과 관련있다고 한다. 범은 山神이며 龍은 水神이 된다. (서정범, 1992:485) 따라서 龍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뭄이 계속되면 龍淵, 龍池 등으로 불리우는 물가에서 기우재를 지내기도 하고, 어촌에서는 풍어재를 지낸다.

이상 문헌으로 본 龍의 形相은 대체로 동체가 뱀과 같이 길고 머리 부분의 특징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머리 부분의 묘사가 특히 자세한 것은 유사한 동체를 한 뱀과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물과 관련이 깊은 동물이다.

(2) 풍수에서의 龍

풍수에서도 산을 龍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풍수에서 말하는 龍과 본 연구에서 다루는 龍山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仁子須知에는 “산의 변화가 千形萬象으로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일어나고 엎드리고, 급하고 완만하고, 순하고 거스르며, 혹은 굽고 곧

아서 지룡의 체단이 일정치 않아 지척간이라도 옹김에 따라 판이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는 龍이 꿈틀거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산을 龍이라 이름짓고 술법상의 용어로 사용한다. 즉 그 형태가 잠겼다, 보였다, 낮았다, 뛰었다 하여 변화무궁함을 취해 얻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풍수에서의 龍은 산을 龍의 몸뚱이로 상징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창조, 1985:54)

풍수에서는 한치만 높아도 산이라고 하고 이를 龍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풍수에서 말하는 龍은 산을 총칭하는 것이지 龍의 形相을 먼 산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龍山은 地形 윤곽선이 龍과 유사하는 데에서 龍으로 여기는 산이다. 따라서 풍수적 어법으로 말하면 본 연구에서 고찰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龍 가운데 특히 龍의 形相을 먼 龍이라고 할 수 있다.

2. 龍山의 地形形相

龍의 생김새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龍의 모습이 연상되는 산은 보다 단순한 모습을 하고 있다.

현지 조사의 결과 龍山으로 불리우는 地形은 龍의 동체가 길게 늘어져 있는 臥龍型和 龍이 한마리 또는 여러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盤龍型 그리고 龍의 동체가 길게 늘어져 있는 가운데 특히 머리만이 강조되어 지각되거나 혹은 머리 부위만 지면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여기는 龍頭型으로 나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24개의 龍山은 盤龍型이 8개, 龍頭型이 6개, 臥龍型이 10개 였다.

(1) 臥龍型

외룡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地形은 평지에 平滑하게 늘어져 있는 능선을 龍의 동체로 그 선단부를 龍의 머리로 지각하는 것이다. 마치 龍이 누워있는 모습으로 여기는 산이다. 龍으로 여겨지는 산은 평야나 수면 등 시계와 시야가

비교적 넓은 곳에서 체험된다. 따라서 표고가 낮더라도 쉽게 지각되고 주변에 높은 地形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地形空間이다. 이러한 地形을 동체를 지면에 누이고 있는 모습 또는 잔잔한 수면에 긴 동체를 늘어뜨리고 있는 편안한 龍의 모습으로 여긴다.

김해군 상동면 龍塘마을의 龍山은 (그림 2)와 같이 낙동강을 향하여 뾰은 舌狀의 地形인데 臥龍型으로 분류할 수 있는 龍山이다. 강 건너에서 보는 龍山은 지금이라도 入水하려는 듯한 龍의 形相으로 보인다. 수면에 접해 있는 地形의 선단부는 급경사이면서 암석이 드러나 있어서 龍머리 부분이 특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림 2) 김해군 상동면 龍塘마을의 龍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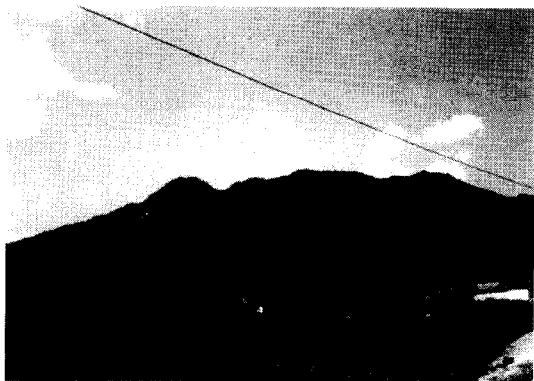
(2) 盤龍型

반룡은 한마리 또는 여러 마리의 龍이 뒤엉켜져 있는 모습을 일컫는 것으로 盤龍型으로 분류할 수 있는 龍山은 다소 가파른 경사를 이루며 여러 개의 능선이 지면으로 내리뻗어 있는 것이다.

김해군의 盤龍山을 그 산 기슭에 입지하여 龍山마을에서 보면 龍의 긴 동체가 마치 파리를 튼 것 처럼 다소 가파른 능선이 산 정상에서 몇 자락이나 늘어져 있다. 이 盤龍山이 한마리의 龍인지 아니면 여러 마리의 龍이 뒤엉켜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은 제각각이었으나 이른바 용트림을 하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은 일치하고 있다.

창원군의 九龍山은 (그림 3)과 같이 기슭의 龍田이라는 마을에서 보이는 몇 가닥의 능선과 谷線이 거의 평평한 산 정상에서 가파른 경사를 이루며 내려오는 形相은 마치 여러마리의 龍이 뒤엉켜져 있는 모습이다. 9라는 숫자는 단지 아홉이 아니라 많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따라서 구룡산은 아홉마리의 龍이라기보다 많은 龍이 서로의 동체를 부여대며 뒤엉켜져 있는 모습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산 중턱에 보이는 바위는 龍의 눈이라고 한다.

盤龍으로 여겨지는 산은 여러 개의 谷線과 波狀의 능선이 특징적이다.



(그림 3) 창원군의 九龍山

(3) 龍頭型

평지에서 지각되는 낮은 고립봉과 와룡형에 분류될 地形이지만 시점의 위치에 따라 능선의 끝 부분이 특징적으로 용기되어 있는 것처럼 지각되는 地形으로 龍頭型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산이다.

밀양군의 龍頭山은 (그림 4)와 같이 산성산의 자락이 길게 그리고 평평하게 강을 따라 내려 뻗다가 河岸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솟아오르는 形相을 하고 있다. 그 선단부는 수면에 면해 있으면서 절벽에 가까운 가파른 경사이다 표토재료가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龍의 畫像 등에서 흔히 보는 이를 드러낸 龍의 안면을 연상하게 한다.

이와 같은 龍頭型의 龍山을 와룡형의 그것과 비교하면 와룡형의 산은 그 선단부가 평활한 능선과 거의 같은 선형을 이루는 데에 비하여 龍頭型의 龍山은 지금까지 평활한 능선의 선형이 선단부에 이르러서는 약간 높아져서 마치 머리를 치든 形相을 연상하게 한다.



(그림 4) 밀양군의 龍頭山

한편 평지의 고립봉을 龍頭山으로 지각하는 것이 있다. 김해군 한림면의 용두마을은 그림 5와 같이 평지 한가운데에 작은 고립봉을 등지고 형성되어 있다. 마을의 지명은 뒷산이 龍의 머리와 같은 形相을 한 데에서 연유하고 있다. 視界가 열린 평지의 고립봉인 龍頭山은 마치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龍을 연상하게 한다. 부산의 龍頭山도 고립봉이다.



(그림 5) 김해군 한림면의 龍頭 마을의 龍頭山

(4) 유사한 地形과의 비교

龍山과 유사한 地形은 뱀의 形相을 하고 있다는 뱀산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령군유어면의 뱀산과 비교해서 龍山の 형태적 특징을 고찰하려고 한다.

창령군의 뱀산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활한 능선이 평지에 뻗어있는 모습이다. 이 산을 지역 주민들은 뱀산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능선의 선단부의 形相에서 구하고 있다. 龍山の 선단부가 절벽과 같이 급경사이면서 표토재료가 암석으로 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뱀산의 선단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표토재료도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이것은 뱀의 머리가 납작하며 삼각형을 띠고 있는 모습을 잘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龍山과 뱀산을 변별하는 데에는 地形의 선단부의 경사도와 표토재료가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5) 龍山の 地形形相의 特徵

지금까지 살펴본 龍山の 地形形相의 특징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 龍山の 地形 윤곽선의 발생

地形空間의 윤곽선은 地形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과 대지에 선 인간의 시점의 조합에 의하여 생성된다. 이것은 극도의 부감경인 공중사진과 같은 고공의 시점에 대비되는 대지의 저시점 투시상의 특징이다.

中村良夫는 대지의 저시점 투시상의 특징을 투시상의 점변적인 변화, 형의 투시적 압축 또는 변형, 시거리의 불연속성(中村良夫, 1982)으로 정리하였다. 윤곽선 체험은 시거리의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현상에 속한다.

사물의 윤곽이나 가장자리는 이러한 시거리의 불연속점에 생긴다. 地形空間의 윤곽선의



(그림 6) 창령군 유어면의 뱀산의 전경

시측	능선에 정면	능선에 사교	능선에 직교
지형과 시측			
발생되는 윤곽선			
용의 형상	용두형	용두형, 외룡형	외룡형

<표 1> 능선과 시측에 의하여 발생하는 용산의 윤곽선과 용의 形相

종류는 일반적으로 능선, 谷線이라고 하는 연속 윤곽선과 수제선을 포함한 구배변화선이라고 하는 수평 윤곽선으로 나누어진다. (中村良夫, 1982) 이러한 윤곽선은 地形空間과 시축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地形空間에 대한 視軸의 성질과 그 윤곽선의 종류는 地形의 능선에 대하여 정면 방향의 視軸, 능선에 斜交하는 視軸, 능선에 直交하는 視軸 등 저위치 시점과 地形과의 조합에 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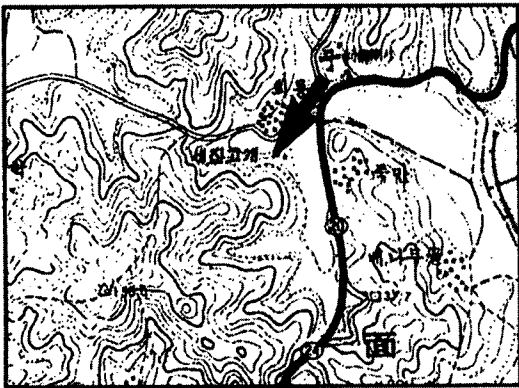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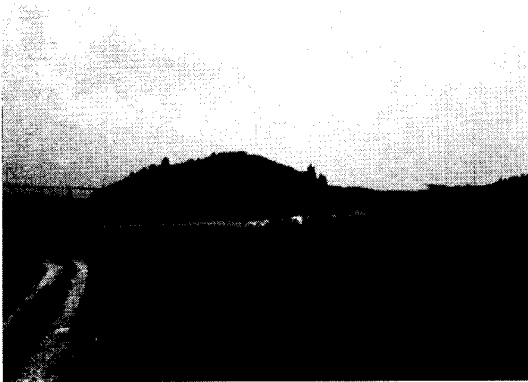
여 생기는 윤곽선과 능선의 상방향에서의 視軸과의 조합에 의하여 생기는 구배 변화선의 윤곽선이 있다.

여기서는 龍의 形相을 띤 地形 윤곽선의 발생을 地形에 대한 시축의 변이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생성된 윤곽선과 龍의 形相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龍의 形相을 띤 윤곽선의 발생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용산의 유형	와룡형	반룡형	용두형
공간형상	수평성	수직성	수평, 수직성
블록 다이어그램			
형상 체험의 계기	윤곽선	윤곽선	윤곽선, 공간 맥락
지형구조			
	- 수면, 평야 등의 평지로 내려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평적인 능선	- 주변에 비하여 현층 높고 파상의 능선	- 수면, 평야 등 평지로 내려오던 평활한 능선이 선단부에서 급하게 변화 - 수면, 평야 등 평지에서 만나는 낮은 고립봉
보전의 요소	- 평활한 윤곽선과 선단부 - 윤곽선을 지각할 수 있는 시계가 확보된 시점 - 지명	- 波狀의 능선 - 파상의 능선을 지각하는 시점 - 지명	- 선단부의 윤곽선 - 선단부를 강하게 지각할 수 있는 시점 - 수면 등 용의 서식지를 상징하는 요소
건설행위에서의 주의점	- 용의 등, 머리에 해당하는 부위에 건축물의 입지를 피할 것 - 선단부를 절개하지 않도록 할 것	- 능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 능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선단부에 건축물의 입지를 피할 것.

<표 2> 능선과 시축에 의하여 발생하는 용산의 윤곽선과 용의 形相



(그림 7) 창령군 유어면의 回龍마을의 龍山의 龍頭山의 龍頭山의 지형과 시점

(1) 능선축에 정면 방향의 視軸에 의한 龍의 形相

地形空間의 능선에 대한 정면 방향에서의 視軸에 의한 龍의 形相은 정점 부분이 강조되는 龍頭山의 形相이다. 때문에 능선의 끝자락이지만 龍頭山과 같이 보인다. 이러한 龍의 形相은 평지에 늘어지는 산의 선단부를 정면에서 바라볼 때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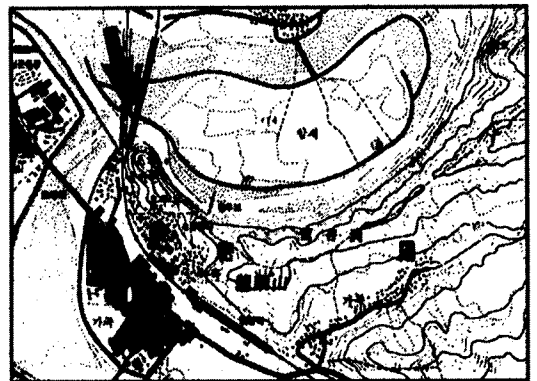
(그림 7)은 창령군 유어면의 回龍마을의 龍山을 능선축의 정면 방향에서 바라본 것인데 평지에 늘어진 능선의 끝자락이 龍頭山으로 보이며 더우기 이를 머리를 들고 꼬리 부분을 바라다 보는 龍의 머리의 形相을 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2) 능선축에 斜交하는 視軸에 의한 龍의 形相

능선에 斜交하는 視軸에 의하여 생기는 龍의 形相은 산지에서 평지로 내려 뺄는 산의 선단부가 龍頭山을 띠고 그 후방에 연이어 평활한 능선이 이루는 龍의 形相을 포함한다. 능선의 정면 방향의 視軸에 의하여 발생하는 龍의 形相은 그 선단 부분만 지각되는 데에 비하여 능선에 斜交하는 것에 의하여 발생하는 龍의 形相은 선단부에 연이어 뺄어져 있는 배후의 수평한 龍의 形相도 의식에 넣어 있다.

地形으로 부터 비교적 완전한 龍의 모습을 연상하는 때에는 능선에 斜交하는 視軸에 의하여 발생하는 龍의 形相인 경우가 많다.

밀양군의 龍頭山(그림 4)은 (그림 8)과 같이 능선축의 斜交하는 방향에서 본 것으로 龍의 동체와 머리 부분을 명료하게 그리고 있는 龍의 形相이 龍頭山이라는 지명의 명명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龍頭山(그림 4)의 지형 龍의 形相을 얻는 시점

(3) 능선축에 직교하는 視軸에 의한 龍의 形相

능선에 직교하는 視軸에 의하여 발생하는 龍의 形相은 하늘을 배경으로 한 스카이라인이다. 밀양군 단장면 台龍里的 龍回洞마을의 龍山은 (그림 9)와

같이 와룡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산으로 긴 동체의 龍이 누워있는 形相을 잘 나타내고 있다. 龍回洞 마을의 龍山은 地形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능선과 직교하는 시축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평으로 평활한 윤곽선이 臥龍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 밀양군 단장면 龍回洞마을의 龍山과 지형 윤곽선이 얻는 시축

4. 龍山の地形構造

물리적인 地形空間이 살아있는 龍으로 지각되기 위해서는 절묘하게 龍으로 보이는 윤곽선과 시점이 필요하지만 또한 이러한 윤곽선이 인상깊게 체험되는 地形構造를 띠고 있다. 여기서는 龍의 形相을 획득하는 시점장을 특징지우는 地形構造를 고찰한다.

(1) 평지로 늘어지는 平滑한 능선의 선단부

산지 또는 구릉지에서 평야 또는 수면으로 내려뻗는 능선은 龍이나 뱀과 같이 동체가 가느다란 생물이 엎드려 있는 듯이 보인다. 능선이 평평하고 그 선단부가 가파른 절벽이 되어 있거나 주변이 평지 또는 수면이면 臥龍山 또는 龍頭山이라는 지명으로 명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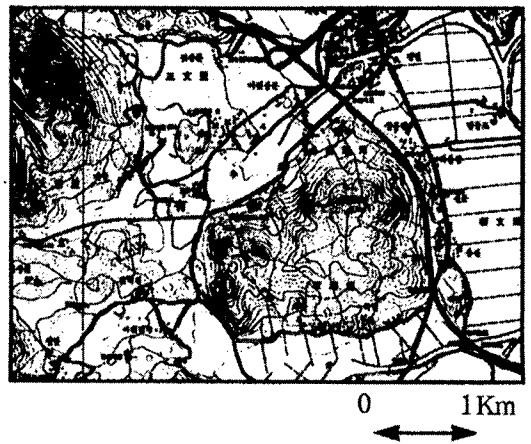
김해군 상동면 龍塘마을의 龍山, 밀양군 의 龍頭山, 김해군 상동면 여차리의 龍田마을의 龍山은 이와 같은 地形構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地形은 평지로 늘어져 있는 탓으로 도로 건설 등으로 선단부가 절단되거나 관통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마을 주인은 龍의 신체 일부가 잘려나갔다고 여긴다. (KBS:1991)

龍은 등용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출세와 귀한 인재의 탄생, 어촌은 풍어를 약속하는 성스러운 존재 등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건설행위에서는 地形의 윤곽선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2) 주변의 평활한 地形보다 한층 솟은 地形

평활한 능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눈에 떨 정도로 솟아오른 깨끗한 山容은 인상적이다. 그것은 連峯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하나의 봉우리지만 고립봉처럼 여겨진다.



(그림 10) 주변의 평활한 지형보다 한층 솟은 지형인 盤龍山の 지형도

수직적인 空間形相으로 인하여 波狀의 능선에 서 용트림을 하면서 승천하고 있는 여러마리의 龍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김해군 장유면의 盤龍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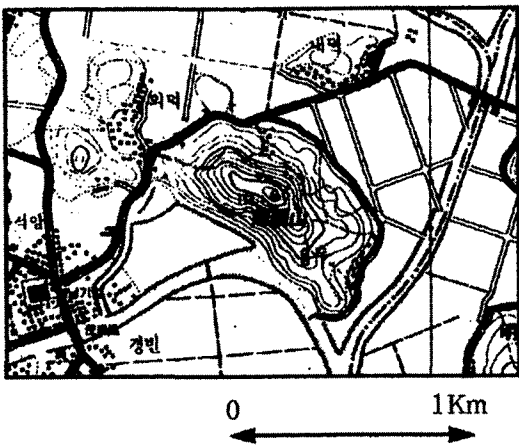
이러한 波狀의 地形은 대규모 건설행위에서 절토되거나 해서 훼손되기 쉬우며 특히 지역 주민은 龍의 동체가 잘려나갔다고 여기거나 심지어 마을 주민의 돌연사나 가뭄 등의 원인을 신체의 일부분이 잘려나간 龍의 보복으로 믿는 등 공간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능선의 형태적 보전을 고려해야할 地形이다.

(3) 평지에서 만나는 고립봉

시야가 열려진 평야에서 만나는 고립봉은 그地形구조로 인하여 인상적이다. 수평적인 공간인 평야에 있는 고립봉은 수직성이 강조된다. 그 때문에 표고가 낮은 地形이라고 할지라도 인상적이다.

(그림 11)과 같이 김해군 장유면 龍頭浦마을의 龍頭山과 같이 평지에 솟아오른 고립봉은 마치 龍이 머리를 들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안정적인 물의 공급이 관건이 되어 있는 논농사를 영위하는 평야지대에서 평지의 고립봉을 비와 관련있는 龍의 머리로 연상하는 것은 유감주술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림 11) 평지에서 만나는 고립봉인 龍頭 마을의 龍頭山の 지형도

그러나 이러한 성현의 공간은 평지에 표고가 낮은 고립봉으로 인하여 택지 등 건설행위가 이루어질 잠재력이 높은 地形이므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맺음말

본 연구는 지역 경관의 독자성과 상징성을 담보하고 있는 지명 명명 공간 가운데 龍山の 地形形相을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龍山の 地形形相을 臥龍型, 盤龍型, 龍頭型으로 나누어 각각의 形相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龍山으로 지각되는 地形의 특징적인 윤곽선의 발생과 그것이 지각되기 쉬운 地形構造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로 얻은 龍山으로 여기는 산의 윤곽선과 地形構造는 지역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전해야할 지역의 상징적인 경관의 형태적 要所와 그 형태를 지각하기 쉬운 시점상의 특징을 밝힌 것이다.

참고문헌

1. 姜榮祚(1993), "地名命名空間의 形態와 相貌的知覺의 地形 保全的考察", 「한국조경학회지」 21(2):68-79
2. 姜榮祚(1995), "낙시 전문가에 의한 海岸地形景觀의 分類와 그 形態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3):69-79
3. 姜友邦(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龍, 동아출판사, 490
4. 朴石基(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龍, 동아출판사, 490
5. 徐廷範(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龍, 동아출판사, 490
6. 趙子庸(1992), 龍의 그림과 조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원, 317-318
7. 한글학회(1970), 「한국지명총람」(경남편), 한글학회
8. 최창조(1985),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54
9. KBS(1991), KBS 다큐멘터리 바다가 위험하다
10. 姜榮祚(1994), 「韓國における地形の相貌現象に關する研究」, 東京工業大學博士學位論文, 日本
11. 楠原佑介(1981), 「古代地名語源辭典」, 福村書店:3, 日本
12. 南方熊楠(1971), 「十二干支」, 南方熊楠全集1, 平凡社, 99, 日本,
13. 中村良夫(1984), 大地の低視點透視像の景觀論的特質について, 「日本土木學會論文集」, 1, 日本
14. 環境情報科學センター(1990), 「自然環境アセスメント指針」, 朝倉書店, 1-14, 日本